받은 구원, 물 쓰듯 하자

(빌립보서 2:12~14)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받은 구원, 물 쓰듯 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받은 구원, 물 쓰듯 하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기적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겠다고 한 것은 곧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나 구원은 부르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구원은 쓸 수 있고 써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을 쓰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인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도 아니고 기술과 인맥도 아닌 구원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구원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고, 기술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별 다른 재주가 없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니 구원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았지만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여나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해석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르가제스테(κατεργάζεσθε)입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카테르가조마이(κατεργάζομαι)의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카테르에 포함된 에르는 일한다,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재차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사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시기는 죽은 후가 아닌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입니다. 대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채 구원을 받았다는 문장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목욕탕에 갈 때에 “목욕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만 목욕탕에 간다고 해서 바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사야하고 탈의실을 거쳐야 하고 몸을 씻고 탕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를 하는 등 모든 과정이 “목욕 간다”라는 한 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가리키는 실제상황 속에는 구체적인 체험의 과정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체험에 대한 요청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제시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보석 빛으로 가득한 곳으로 표현되었던 이유는 인간의 언어로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등에 등장하는 네 생물이 보좌를 향해 끊임없이 거룩하다고 경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상급으로 좋은 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사로잡힌 상태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약속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의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감으로써 사후에 약속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도 물 쓰듯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약속 속에 묻어두는 이유는 구원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약속받았다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삶의 현장에서 약속으로 받은 구원을 물 쓰듯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쓸 수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약속 또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죽은 뒤에 구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면서 좋으심에 사로 잡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11절의 말씀이 답을 줍니다.
문맥적으로 보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는 문장 뒤에는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가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소금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영예로운 조명을 받으시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이 되시고 금메달을 따셨다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조명이 하나님께 비춰서 내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보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고 산 아래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약속된 구원을 쓰고 성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전에는 마음에서 세상이 1등이었습니다. 1등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 변합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에는 배우자가 1등이고, 자녀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에는 자녀가 1등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애인이 있다면 마음에서 애인이 1등일 것입니다. 배우는 외모가 1등일 수 있으며 정치가나 국회의원들에게는

권력이 1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1등이 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자나 깨나 하나님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기승전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입만 열면 돈 얘기, 목사님이 입만 열면 예배당 건축과 예산 얘기만 하고 있다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상태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입만 열면 하나님만 나오는 구원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세상이 1등이 되는 상태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라면 마음에서 자녀가 1등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대상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1등이 되는 상태입니다. 돈이 마음에서 1등인 상태를 묵인한다면 돈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1등자리에 세상을 앉혀놓고 2등 3등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1등, 돈을 벌게 해주는 고객이 2등, 고객을 불러다 주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가 1등이고 자녀를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찾으려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시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을 확인함으로써 구원이 성취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였고 또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한 언급은 빌립보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면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시면 기쁨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1등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을 좌우합니다. 돈이 1등일 때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등이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이란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으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쓰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회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1등으로 만들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승진을 못하면 좌절하고 고민하고 괴롭지만 이 상황을 1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대상과 상황들을 2등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물 쓰듯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리라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은 죽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소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을 하시는 구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기뻐하는 마음의 특징은 소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 갖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소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졌기에 하나님의 소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을 땅에서 쓸 수 있을 때에 땅에서의 소원은 없어집니다. 약속으로 받은 구원을 앞당겨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약속받은 구원의 내용을 땅에서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나타나는 소원들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에 소원이 생겼다면 그 소원은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나타난 소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델로(θέλω)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특정한 바

람(to wish)과 의지하는(to will) 것으로써 번역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문 13절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1등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대면해야 합니다. 가족을 마주해야 하고 직장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2등 3등으로 밀려난 세상과 마주할 때에는 마음에서 1등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내게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이 되시게 할 때에 내게 가지고 계신 기쁘신 뜻들을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 있으면 되고 그 구원을 지금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뜻하는 바가 생기면 해나가면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이 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이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동등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복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내 뜻대로 내 발로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길만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오직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시는 구원의 상태를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갖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민하는 동안 딴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돈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을 접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1등으로 모시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의 다리를 꺾어서 무릎을 꿇게 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의사가 용한지 찾으러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구원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1등 되시면 마음 밖으로 밀려난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롯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경품행사에 전화번호를 적어 넣으셨는데 당첨이 되셔서 소나타를 받으셨습니다. 새 차를 사신 줄 알았는데 공짜로 받은 차를 몰고 다니시니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권사님이나 집안 식구들이 운전을 할 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차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핸드폰에 당첨되었다면 핸드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건이니 쉽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당첨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 중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피아노를 즐길 수가 없으니 팔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쓸 수 없어서 팔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약속된 구원을 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까? 이제까지 구원을 쓰지 못하였다면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땅을 칠 노릇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두려운 일이 하나 있다면 구원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 되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1등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장님 마음에서 돈이 1등인 상태, 목사님 마음에서 예배당 건축이 1등인 상태, 부모님 마음에서 자녀가 1등인 상태, 부부간에 배우자가 1등인 상태, 나라 문제가 1등인 상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끔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하에 무섭고 두렵고 참담한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이 1등 되시도록 마음을 유지하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약속된 구원을 땅에서부터 물 쓰듯

이 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온 몸이 전율 할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길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땅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이 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데도 우리는 이 구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약속받은 구원을 땅에서도 물 쓰듯이 살게 하여 주셔서 기필코 가나안 복지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